

내부결속·신뢰 앞세워… 新친명·7인회로 완주

이재명을 만든 사람들

신친명 박찬대·김민석 투톱
중앙대·성남라인 7인회 포진
지방행정 출신에 조직 중책
비명 축출 후 일극체제 구축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헌적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6·3 조기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양당 대선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도운 인물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 대표 연임으로 일찍이 비명(비이재명)계를 축출하고 일극체제를 구축한 민주당은 ‘신(新) 친이재명(친명)계’와 이 대표를 최측근에서 돕던 7인회가 중심이 돼 선거를 치렀다. [편집자주]

이재명 후보는 더불어민주당당대표를 거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입지를 다지면서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라는 민주당 변방에 머물렀던 이미지에서 벗어나 인적 기반을 다양하게 확장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선거 실패는 신친명계가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친명계는 20대 대선 후 국



회에 입성한 이재명 후보가 꾸린 지도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선대위에서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박찬대 원내대표와 같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대표적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 출마 이후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으며 당을 이끌었고, 특유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전국을 누비며 시민들에게 이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박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영등포 중앙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오늘 대선은 윤석열의 12·3 내란 때문에 치르는 선거”라며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한다. 내란으로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투표로 일으켜 세워주시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재명 지도부 체제에서 정책위의장과 총선 종합상황실장을 맡아 중용됐다. 이재명 2기 지도부 선출 당시 초반 김 최고위원이 정봉주 전 의원에게 득표율에서 밀리자, 이 후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 최고위

원을 출연시켜 힘을 보태기도 했다. 또한 김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몇달 전부터 정부의 수상한 계엄 준비 움직임을 포착해 훗날 평가받기도 했다.

신친명계보다 잘 알려진 이 후보의 핵심 참모그룹은 ‘7인회’다. 이들은 구(舊) 친명계라고도 불리며 이 후보의 정치 초년기부터 당 내 활동 등을 돕는 등 오랜 인연을 자랑한다. 친명계 좌장으로 평가받는 5선 정성호 의원은 이 후보의 멘토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의 중앙대 후배인 김영진 의원은 이 후보의 정부를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후보와 같은 성남시, 중앙대 출신인 문진석 의원도 이 후보에게 정치적 조언을 해주는 핵심 정치인으로 알려졌다.

또한, 행정가 출신이 이 대표가 국회 경력만 있는 정치인보다 실적을 낸 지지체장 출신 정치인을 더 신뢰한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3선 논산시장 출신인 황명선 의원은 시장 군수구청장 협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이 후보와 긴밀한 교류를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지도부와 대선 캠프에서 ‘조직’ 부분에서 중책을 맡았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李 “충직은 기본, 실용이 핵심”… 유능한 인재 전면

〈이재명〉

이재명 정부, 내각은 누가

취임 즉시 내각 교체 속도전 예고
부처 개편·장관 인선에 이목 집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각 구성의 원칙을 ‘충직’과 ‘통합’으로 내세운 만큼, 민주당 안팎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등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전날(2일) 기자회견에서 내각 인선 기준에 대한 질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지 제1의 기준은 ‘국민에게 충직한가’라며 “유능하고 청렴한 (인재가 필요하고) 적정하게 지역, 연령, 성 등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요소를 충족한다면 더 낫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거 흠결이 있는 사람은 인선

에서 제외하는) 배제 기준은 적용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수십 년 전에 실수했다고 해서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 30~40년 전 소년기 일탈을 이유로 유능한 사람을 배제하면 국가적 손실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선대위는 통합의 가치 속에 많은 분과 함께 하려고 노력했다. 당내에서도 작은 차이를 넘어 (함께) 해줬고, 권오을 전 의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이 함께 해줬다. 앞으로 국정에서도 역할을 함께 나눠가며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취임과 동시에 바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내각을 갈아치우는 작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먼저, 캠프 내 외교·안보 전략가들이 실무를 맡고 있어 글로벌 통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엔 북핵 6자 회담 수석대표,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역임한 위성락 민주당 의원이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에서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이재명 후보의 외교 책사로 평가받는 김현중 전 국가안보실 2차장도 정부에서 쓰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장은 21대 대선 민주당 TV 찬조 연설에서 “우리나라 지도자는 국민이 맞아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을 노후가 있어야 한다”며 “전자는 외교·국방의 영역이고 후자는 기술 산업 통상의 영역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

이 바로 안보로 이재명 후보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일어난 군 내부 혼란을 수습하고 국방개혁을 이끌 국방부장관 후보군도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주요 경력을 쌓아온 5선 안규백 의원이 국방부 장관 유력 후보로 거론하고 있다. 이 후보가 군 문민화와 민간인 출신 장관 임명 가능성도 밝힌 만큼, 당 내 군 전문가와 예비역 장성도 장관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과 기후에너지부 신설, 인구청년가족부 확대 개편 등을 공약한 바 있어 부처 개혁과 고위직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출구조사 두 자릿수 열세에 ‘무거운 침묵’

지도부 굳은 얼굴로 중계방송 응시
일부 의원들 발표 직후 상황실 떠나

국민의힘은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출구조사에서 김문수 대선후보의 예측 득표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두 자릿수 격차로 열세라는 결과가 발표되자 무거운 침묵에 빠졌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저녁 국회도서관 대강당에 차린 개표상황실에서 함께 방송 3사(KBS·MBC·SB S)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봤다.

대다수 지도부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긴장한 듯 굳은 얼굴로 자리를 지켰다. 오후 8시께 김 후보의 득표율이 비교적 큰 격차로 이 후보에게 밀린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이들은 한동안 아무런 대화 없이 심각한 표정으로 중계방송 화면을 응시했다.

당초 당내에서는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지지율이 좁혀졌다는 분석이 많았고 박빙 내지는 역전도 가능하다는 기대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며 몇 차례 마른세수를 했고 한숨을 쉬기도 했다. 양옆에 앉은 나경원·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무표정으로 모니터와 휴대폰 화면을 번갈아가며 봤고, 옆에 앉은 나 위원장, 김기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을 건네기도 했다.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부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맨 앞줄에 앉았던 권 원내대표를 비

롯해 김기현·윤상현 공동선대위원장,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박대출 총괄지원본부장 등도 8시10분께 상황실을 빠져나갔고 기자들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다.

나경원 선대위원장은 출구조사 발표 직후 KBS와의 방송 인터뷰에서 “다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오차범위 내에서 다소 열세나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온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지난번 총선에서도 방송 3사의 출구조사 예측에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며 “마지막까지 조용히 결과를 기다려보겠다”고 했다.

/뉴시스